

치 사

부처님께서서는 금강경에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고 하시면서, 삼천대천세계에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을 지니어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소중한 정진의 마음으로 받드는 금강선원의 혜거스님께서서는 만일수행결사운동의 일환으로써, 불국토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성스러운 금강경 강송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올해 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복덕과 지혜를 증장하여 하루빨리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선진 국가를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원대한 희망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불자들의 정진과 일상의 마음이 집에 모범을 보여주는 원력의 실천이자 삶의 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수희 찬탄하는 금강선원의 강송대회야 말로 수백 수천 불사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익한 불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혜를 갖춰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불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불사까지 이루어 가시는 혜거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을향이 가득한 경치와 더불어, 부처님의 말씀을 강송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도 향기로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공덕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문을 활짝 열고 행복한 가정과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기를 손 모아 기원합니다.

불기2558년 10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